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 명		학 번	
단과대학		학과(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국문] 아픈 이념 [제주 여행 에세이] [영문] A Little You (Jeju Travel Essay)		
지도교수 의견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알찬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 대하여 높게 평가합니다. 글과 사진을 통해서 제주도의 서정적 풍경이 담아냈다는 점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1. 도전 과제의 목표

- 꿈 껴왔던 이름 석 자를 내건 책 출간
-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제 이름에 자부심을 가졌고, 좋아했습니다. 이런 제 이름을 걸고 책을 내는 것이 8살 때부터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 ‘아픈 이념’으로 인해서 위로 받고 힐링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소망을 성취하는 계기
 - 제 책을 읽으며 웃음짓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여행 작가’ 라는 꿈을 달성하는 계기
 - 저는 당당하게 여행 작가가 되었다는 걸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계기
 - 평소 부끄러워하고, 책 출간에 대한 희망을 숨겼지만 소심함을 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며 굳건하게 성장해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씩씩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여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기
 -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혼자서도 여행을 다닐 수 있다’, ‘꼭 돈이 많지 않아도 된다’, ‘연인, 가족, 혼자 누구와 가던 여행은 즐겁고 행복하다’ 등 걱정을 버리고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소에 제주 여행을 하며 이루지 못했던 목표 이루기
 - 제주 도민과 친해지기, 혼자 밥 먹어보기, 혼자 술먹어보기(이호테우 포장마차에서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기), 글 쓰는 실력 키우기, 사진 보정하는 실력 키우기, 영상미 담은 법 배우기 등 작은 목표들을 이루면서 최종적인 목표에 부합시키고 싶습니다.

2. 도전 과제 내용

-<책 제목 선정>

책 제목 ‘아픈 이념’은 제주 방언으로 ‘작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당신’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외적으로는 148이라는 작은 체구를 가진 학생일 뿐이지만, 여행을 다니며 경험하고 얻어가며 내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세상에 부딪히고 지쳐 작아진 당신들을 위해 바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책을 구매할 때 책 제목과 표지에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고심 끝에 ‘아픈 이념’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우울할 때 크고 거창한 것보다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갖습니다. 이 책에 ‘작은’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만큼 사람들이 제 책으로 인하여 그 느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책 ‘아픈 이념’은 제가 지금까지 제주여행을 다니며 보고 느꼈던 것들을 따뜻하게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면 쉬, 오름, 책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쉬었는지, 어떤 쉬의 방법으로 위안 받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쉬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오름이 인상 깊었는지, 오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오름을 오르며 느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책방’은 아직 사람들이 책방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애정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책방의 즐거움과 장점들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더 좋은 책방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개에 제 이야기와 감정들을 덧붙여 다사로운 책 한 권이 발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 설명>

현대인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주 여행을 통하여 위로받고 힐링 받았기에, 그 뒤로 힘든 시간이 오거나 기대고 싶을 때 제주여행을 생각하며 극복했습니다. 제가 발간할 책 ‘아픈 이념’은 지친 현대인이 힘든 순간을 직면했을 때 도움을 주고, 힐링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책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책을 손에 드는 것이 아닌 잠이 오지 않는 날 또는 햇살이 좋은날에, 비가 와서 기분이 울적한 날에 열은 웃음이 띄어지는 책. 유명하고 임팩트 있는 에세이나 소설도 좋지만 작고 소소한 느낌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손에 잡히는 책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나 ‘클래식’, ‘추억은 방울방울’, ‘바다가 들린다’ 등을 시청한 뒤 정말 긴 여운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꼭 책을 발간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책으로도 전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픈 이념’이 그런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알찬 내용과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3. 도전 과제의 성과

- 평소 관심 있던 출판 과정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 제주 지역에 대하여 더 깊고 폭 넓게 알게 되었습니다.
-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여행 에세이 출판’ 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4. 자기평가

- 제일 크게 와 닿았던 문제는 아직 글 쓰는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 쓰는 실력을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 여행을 할 때는 몰랐던 사실들을 이번 제주도 탐방으로 인해 많이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법을 배웠으며, 그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 감으로써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배워갈 수 있다는 점을 몸소 느꼈습니다. 책을 써내려가며 저 자신에게 반성도 많이 하고, 반대로 칭찬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장수현’ 을 다시 한 번 알아가는 계기도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책을 쓰며 정말 행복했고, 또 다시 기회가 온다면 더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책을 출판 하고 싶습니다.

5. 최종 결과물

- 책 아끈 이녁